침소봉대의 신앙

(시편 44:1~26)

9.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0.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11.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 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12.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13.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14.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 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15.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16.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17.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여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침소봉대(針小棒大)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침소봉대(針小棒大)의 신앙'

'침소봉대(針小棒大)'란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늘만한 것을 몽둥이만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침소봉대의 신앙은 곧 과장된 의식이 있는 신앙을 뜻합니다. '과장'이라는 말의 어감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만 신앙은 침소봉대의 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이 주어지고 걸림돌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생애의 어려움의 횟수 정도를 가능한 줄여나갈 수 있는데 바로 침소봉대의 신앙입니다. 작은 일을 크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16년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김제동 씨를 국회청문회에 증인출석하게 하였습니다. 김제동 씨

가 새누리당 백승주의원의 호출을 받게 된 이유는 군복무시절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4성 장군의 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주머니로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생활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는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3회 복창을 하고서야 영창에서 나왔답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 김제동 씨는 “웃자고 한 이야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라는 농담어린 답변을 통해 더 유명해졌습니다. 나중에 성남시에서 토크콘서트를 하면서 국정감사 출석요구에 얽힌 뒷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사를 읽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전화로 “아이고, 시키야! 내가 니 때문에 몬 살겠다. 웬만하면 눈에 띄는 사람은 다 사모님이라고 해라”라고 하였다고 해서 또 좌중을 웃게 하였다고 합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유머를 다큐로 받아들이면 되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라는 것은 사소하다는 것이고 가볍게 넘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죽자고 달려든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심각한 마음가짐으로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웃자고 가볍게 던진 이야기에 죽자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침소봉대의 의식으로 과장 된 것처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림돌들을 마주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침소봉대의 신앙은 내 삶에서 주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 모두 죽음으로 갚아야 할 일처럼 확대시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소봉대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희한하게도 평강이 주어집니다. 유머를 다큐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죽음을 지불할 각오로 침소봉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집니다. 죽음으로 맞이한다고 해서 경직되거나 메마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그맨들의 유머를 뛰어넘을 만큼 즐겁고 기쁜 삶이 주어집니다.

오늘 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자들 간에 이런저런 역사적 배경들이 추측되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주제를 파악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저자의 영적감정과 의식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악 가능한 것은 시의 배경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이방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처참한 능욕을 받는 시기로 보여 집니다. 국가적 민족적 설움을 가슴에 안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한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며 읊은 시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본문의 시는 비탄시로 구분되면서도 다른 비탄시에 비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비탄시들은 어려움에 처해서 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들이 현재 시점에서 어려움에 대한 구원을 호소함에 비하여, 하나님께서 선민과 동행하시며 구원과 승리를 안겨주셨던 과거의 시점으로부터 현재를 조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보면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정복당시에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하셨기에 승리가 주어질 수 있었다는 과거의 경험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민과 동

행하시며 구원과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자와 함께 살아가는 당대의 사람들도 경험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어진 전쟁의 참담한 패배로 인한 저자의 괴로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시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첫 번째 괴로움은 누구나 인지상정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괴로움입니다. 이방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온갖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괴로움은 선민만이 겪는 괴로움입니다. 과거의 전쟁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나라에게는 패배하였고 하나님께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두 번째의 괴로움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시의 저자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기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봅니다.
저자는 전쟁에서의 참패를 이야기하기 전에 수많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언급합니다. 또한 선민들의 승리가 결코 군사력 때문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패배를 겪는 이유를 당연히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라 여기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버리셔서 패배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나름대로 선민이 지켜야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는 징계 받는 당사자들의 깨달음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자는 깨닫지 못한 채 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물을 먹이셨고 사십년 동안 옷과 신발이 해어지지지 않게 하시며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허락하셨고 저자의 세대 또한 그와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양자택일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민들에게 당신을 알리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방민족의 신들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서 하나님은 선민들의 마음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마음을 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모든 선민들의 마음이 땅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으며 땅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시선이 향해있는 땅에서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는 참 구원을 향한 수단이자 과정입니다. 그러한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적

을 보여주신 것은 땅에 대해서 느끼던 목마름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며 크고 작은 걸림돌들을 만납니다.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유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지점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지점에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리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이 걸림돌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목표를 땅에서 하늘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대화를 하는 중에 아내가 던진 말에 남편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담학자들은 그럴 때에 혼자 삭히거나 엉뚱한 곳에 화를 내지 말고, 솔직하게 당신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나의 기분이 상했음을 이야기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인은 아내와 대화중에 기분이 나빠졌음을 느낄 때에 오히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내를 통해 기쁨을 얻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내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분도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인은 마음을 건드리는 사소한 걸림돌이 되어버린 아내를 죽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기분이 나빠지려는 순간 아내로부터 기쁨과 만족거리를 얻으려 하는 남편 됨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마음 걸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사소함에 대해서 아내에게서 어떠한 기쁨도 찾지 않겠다고 남편 됨을 죽이는 침소봉대의 과장된 자세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상번제가 드려질 때에 그러한 내가 죽었음을 기억하고, 아내를 향하여 기대했던 작은 기쁨조차도 하늘을 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내에게서 기대했던 기쁨과 만족이라는 목마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모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사소한 말썽으로 인해 화가 나려고 할 때에, 화를 내기에 앞서 부모 됨을 죽이는 것입니다. 상번제가 드려지는 번제단에서 죽는 어린양과 함께 아버지 됨과 어머니 됨이 죽었음을 기억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사소한 걸림돌에 대해서조차 이렇게 죽음으로 대처할 때에 오히려 큰 낭패는 줄어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서 자녀에게 주어질 수도 있었던 큰 낭패가 줄어들고, 부부관계에 주어질 수 있었던 낭패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항상 넘치게 됩니다. 돈이나 건강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이상을 감지했을 때에 걱정하기에 앞서 몸 자체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삶에서 걸림돌을 느끼는 이유는 그로 인해 얻으려 하는 세상에서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기분이 나빠졌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을 요구했기 때문이고, 내가 인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면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기분이 나빠지고 걱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나의 만족과 기쁨은 하나

님이시지 이 나라와 정치인들에게서 나올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죽음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자들이 생겨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 이 나라를 평강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전쟁의 실패 이유를 깨닫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과 승리를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땅에 국한시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결여되어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에 목말라서 하나님이 가담해주지 않음을 원망불평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살펴볼 때에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주석서들도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올바르게 포착하지 못한 채, 기록된 행위 자체를 옳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든지 대면할 수 있고 처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객관화 시켜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통해서 저자의 상태가 곧 나의 상태일 수도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전쟁에서의 구원을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받았으니 당연히 마음의 목마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승리 자체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선민들을 패배하게 하신 것이고, 그 패배 이전에도 분명히 다른 걸림돌들을 주시며 돌이키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걸림돌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병폐이며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걸림돌이 생긴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걸림돌은 극복하기 위한 장애물이 아닌 돌이킴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은 걸림돌부터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림돌을 주시는 세상의 목표를 향해 가보았자 결코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에 처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대화로 극복해서 부부관계를 호전시키겠다는 의욕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오히려 배우자에게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는 남편 됨과 아내 됨을 상번제의 번제단에서나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곧 배우자에게서 기쁨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인해 사소한 걱정이 생기더라도 십자가에서 돈에 대

해 죽어야 합니다. 돈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곧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의 표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 등장하는 걸림돌이나 장애가 생기는 이유는 삶에 대한 목표와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걸림돌이 느껴질 때에 그것을 극복하거나 피해가려 하지 말고 아예 죽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나 전체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죽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좀 더 큰 걸림돌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말을 듣지 않고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겠다며 세상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패배처럼 거대한 징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멍청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걸림돌은 극복하거나 우회하거나 제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게 하는 목표점 자체에 대해 죽음으로써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의 방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바꾸어집니다. 이러한 일은 십자가에서 목표점에 대해 죽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사소한 걸림돌이 느껴질 때에 빠르게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서 전환점으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비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영적으로 예민한 마음을 주셔서 머리카락 같은 걸림돌에도 죽음으로 반응하여 삶의 진정한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